

2009 년 봄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
하나님의 성전인 교회—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—의 내재적 의미

메시지 5

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자인 솔로몬—

솔로몬의 기원, 솔로몬의 지혜, 솔로몬의 마음, 솔로몬의 통찰력, 솔로몬의 노래

성경: 마 1:6 하, 왕상 3:12, 4:29-30, 전 1:2 하, 3:11, 아 6:4 상, 13 상

I. “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”—마 1:6 하.

- A. 다윗은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 솔로몬을 낳았다—삼하 12:1-13, 24.
- B. 솔로몬은 사람의 범죄와 회개에 하나님의 용서가 더해진 결과이다—시 51:1-4, 7, 9, 17-18.
 - 1. 솔로몬의 기원은 영적인 결혼, 즉 다윗의 범죄와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결혼한 것이다. 이러한 결혼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산출했다.
 - 2. 교회는 항상 솔로몬이라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, 즉 우리의 범죄와 회개에 하나님의 용서가 더해진 결과인 사람과 우리에게 평화롭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 의해 건축된다.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—삼하 12:24-25, 고전 3:9, 16.
- C.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후에 기도했다. “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”(시 51:18). 여기에서 ‘선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교회를 채우시는 것을 포함한다.

II. “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”—왕상 3:12.

- A. “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”—4:30.
- B. “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”—34 절.
- C. 솔로몬의 지혜는 장차 올 참 지혜의 그림자였다. 참 지혜는 하나님이시고,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는데,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신격에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게 하신다—골 2:9, 고전 1:24, 30.

III. “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...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”—왕상 4:20, 29.

- A. 지혜와 넓은 마음은 한 가지의 양면이다. 지혜의 비결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—3:12, 5:12 상.
 - 1.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지혜롭지만,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어리석다.

2. 사람이 편협하고 마음이 좁으면 교만하기 쉽다. 교만은 사람이 좁다는 것을 표현한다.
- B.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 마음이 넓어지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—고후 5:20, 6:11-13.
1.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정도에 달려 있다.
 2. 마음이 좁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부분적으로만 화목하게 되었고, 구원받은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킨다—2 절, 롬 5:10.
 3.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하고 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이다—마 18:21-35, 엡 4:32.

IV. “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”—전 1:2 하.

- A. 해 아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체험한 후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러한 공허함이 그를 차지했다—12-14, 17 절.
- B.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으로 영원, 즉 영원한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을 주셨는데, 그것은 사람이 영원하신 분—영원한 생명이신, 영구하고 은밀하고 비밀한 분—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—3:11, 8:17, 창 21:33.
1.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. 오직 그리스도이신 영원한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목적 있는 깊은 감각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—엡 1:9, 11.
 2.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통해 그분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갖는 것이다.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구원받았고,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에만 완전하고 깊은 만족을 가질 것이다—엡 2:21-22, 계 21:22, 딤후 1:9, 3:10.

V. “솔로몬의 아가라”—아 1:1.

- A. “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”—6:4 상.
1. 디르사는 왕이신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하고,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의 보호 장치였다.
 2. 그리스도의 연인은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었다—고전 3:9-12.
 - a. 구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은 디르사와 예루살렘으로 예표되었다. 신약에서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다—엡 4:16.
 - b.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은 지성소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것이다—계 21:2-3, 16, 22.
- B. 솔로몬의 재생산과 배필인 술람미는 그리스도의 연인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어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재생산—(신격에서가 아니라)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—이 되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—아 6:13 상, 계 21:9-10.